

김은주의 Theme Photo

김은주

Theme

Photo

- 첫번째 -

풍경사진(Landscape Photography)

사진의 발명 초기, 가장 널리 촬영되었던 것이 풍경사진이다. 풍경사진의 역사는 사진술의 발명가인 조세프 니세포르 니에프스의 세계 최초 풍경사진 <르 그라의 집 창에서 내다 본 조망, 1827년>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비송형제의 알프스에서 찍은 풍경사진, 미국의 근대 사진을 이끌었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구름을 주제로한 <이퀴발런트 Equivalent> 시리즈, 리얼리티에 입각한 'f64' 그룹, 현대의 풍경을 표현했던 '뉴토포그래픽스'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이렇듯 풍경사진은 자연이나 인공적인 풍경을 담아내는 일차적인 표현 방법을 넘어서 그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표현되며 작가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담아내는 행위이다.

글로벌한 1인 미디어가 대거 등장하면서 사진은 더욱 친숙하고 밀접하게 다가온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행에서의 풍경사진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이 직접 접해보지 못했던 대자연의 장엄함과 시골의 소박한 자연풍경을 사무실과 거실의 모니터 앞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자의 내면 그대로 담아내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3차원 또는 4차원의 풍경을 사진이라는 2차원적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촬영방법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 사진강좌 연재 일정

첫 번째 _ Landscape

두 번째 _ Portrait

세 번째 _ Snapshot

네 번째 _ Flower/Insect

다섯 번째 _ Still Life

여섯 번째 _ Night View

빛이 그려내는 풍경사진

사진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 일컬어질 만큼 사진에서의 빛은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자연은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빛의 성질과 방향이 달라지며 늘 변화무쌍하여 시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풍경사진의 분위기와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

A. 대상의 질감과 콘트라스트, 입체감은 빛의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

- a. 순 광 : 빛이 피사체의 정면을 고루 비춰 촬영하기 가장 유리한 상태이나 평면적인 묘사가 될 수 있다.
- b. 사 광 : 정면과 측면 사이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새도우와 하이라이트의 비율이 3:7이 된다. 입체감이 풍부하며 빛의 계조가 많아 이상적인 광선이다.
- c. 측 광 : 그림자가 입체감을 만들어 표면의 질감 묘사에 효과적이다. 사광과 더불어 가장 좋은 풍경 사진을 만들 수 있다.
- d. 역 광 : 빛이 카메라로 향하는 역광은 대상의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실루엣 사진으로 윤곽을 단순화시킬 때 주로 사용된다. 일출과 일몰, 물의 반사와 같은 풍경 촬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 e. 반 역 광 : 대상의 좌우 뒤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순광과 비교했을 때 3~3.5배 정도의 노출을 더 주어야 한다. 역광과 동일하게 다루기는 어려우나 피사체의 윤곽에 Line Light가 생겨 신비로움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 f. 탑라이트 : 지면을 수직으로 비추는 이 빛은 매우 강한 광선이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강하며 라인과 패턴 촬영에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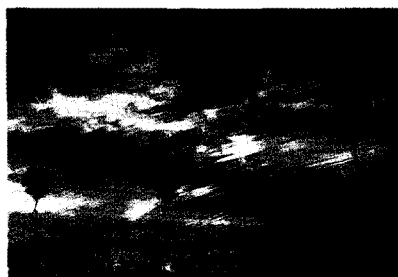
B. 사진의 분위기는 빛의 성질과 색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a. 직사광과 확산광 : 흔히, 풍경은 날씨 좋은 맑은 오후에 촬영해야 아름다운 풍경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사광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서 오후 2시경의 한낮에는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콘트라스트가 강해 명암 대비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이 손상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만든다. 반면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은 빛이 부드럽게 확산되어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고 입체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음영과 색감은 부드러워진다. 또 확산광으로 인해 그림자가 사라져 세부묘사가 가능해지며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b. 색온도 :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을 백색으로 인식하지만 발광되는 빛은 온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며 흰색 기준으로 절대 온도 °K(Kelvin)로 표시한다. 빛을 전혀 반사되지 않는 완전 흑체를 가열하면 온도에 따라 각



©김대현



©김대현

기 다른 색의 빛이 나오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청색 계통의 빛이 나오고,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 계통의 빛이 나온다. 이때 가열한 온도와 나오는 색의 관계를 기준으로 색 온도를 정하는 것이다.

김은주의 Theme Photo

김은주

Theme

Photo

우리가 늘 접하는 태양광은 5,500~7,000°K, 카메라 플래시는 5,600~6,000°K, 백열등은 2,500~3,600°K, 촛불은 1,800~2,000°K가 된다. 즉 동일한 태양광 아래에서도 이른 새벽과 해질 무렵은 색온도가 낮고 붉은 기가 많으며, 비 오는 날과 흐린 날은 색온도가 높고 파란 기가 많다. 이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색온도 필터를 사용하거나 Daylight/Tungsten Type Color 필름을 선택해 사용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최근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색온도를 적극 활용해 무조건적인 적정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기 보다는 날씨, 계절, 장소에 따라 달리 설정해 독특한 분위기의 풍경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풍경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을 보고 자신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날씨 좋은 한낮의 시간대와 적정 화이트 밸런스만을 고집해 천편일률적인 사진을 찍기 보다는 날씨와 시간대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풍경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천둥 번개가 치는 광활한 풍경에서부터 오랜 지 빛으로 물든 저녁 하늘, 눈과 비가 조용히 내리는 서정적인 도시의 풍경, 자욱한 아침 안개가 내려앉고 있는 숲의 풍경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섬세한 감성의 가락을 담을 수 있다.

다양한 렌즈를 통한 원근감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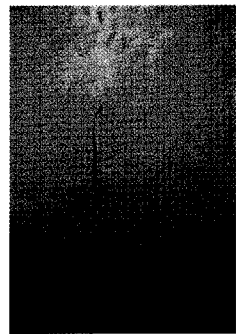
원근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표현하는 선형 원근법과 빛의 농담을 통한 공기 원근법이 있다. 풍경 사진에서는 원경, 중경, 근경을 적절히 배치시켜 원근감을 표현한다면 화면의 깊이를 만들 수 있으며 렌즈의 화각과 조리개의 수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풍경사진에서 원근감은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표현방법이다.

풍경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는 광각렌즈이다.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렌즈는 좁은 장소를 넓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하고 광활한 풍경을 만들어 준다. 또 소실점을 통한 원근 묘사에 탁월하다. 그러나 원근감이 극한으로 표현될 때 사물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 수직 수평에 유념해 촬영해야 한다.

표준렌즈는 사람의 시야각과 비슷한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근감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풍경사진에 용이하다. 더불어 화각을 통한 표준렌즈만의 안정감은 오래도록 보아도 질리지 않는 풍경사진을 만들어 준다.



©김대현



©김대현

망원렌즈는 다가갈 수 없는 대상을 촬영할 때 효과적이다. 광각렌즈와 달리 시각적인 측면에서 선형원근감은 떨어지지만 농담을 통한 원근법에 탁월하다. 특히 풍경에 안개와 스모그가 있는 경우 탁월한 아웃포커스의 효과와 더불어 멀리 위치해 다가갈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일출과 일몰 촬영에서 실루엣과 함께 촬영한다면 드라마틱한 풍경사진을 담을 수 있다. 망원렌즈의 경우는 삼각대와 릴리즈의 사용을 권장한다.

자연이 만들어 내는 형태미는 구성과 구도로 표현

아름다운 풍경을 접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움을 모두 촬영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풍경 사진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형태미와 명암, 계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자는 카메라 앵글과 촬영 위치를 찾아야하며 동시에 주제를 강조해야한다. 즉 사진에서 구도와 구성은 촬영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이러한 이유로 풍경사진을 촬영할 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화면을 단순화시킨다.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황금 분할과 3등 분할법은 가장 안정적인 풍경 사진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촬영자의 주관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풍경 사진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지평선과 수평선의 위치는 화면의 1/3지점이 가장 안정적이다. 때로는 이 공간 비율을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촬영해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으며 하늘을 강조하거나 바다를 강조할 경우 2/3의 비율을 선택 할 수도 있다. 풍경사진 촬영에서 수직과 수평의 설정이 힘들다면 격자 스크린이나 라이브 뷰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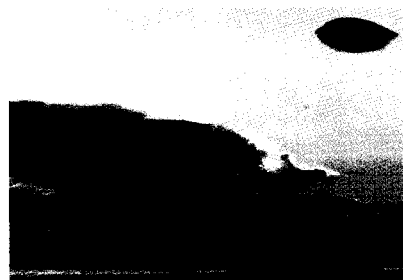
©김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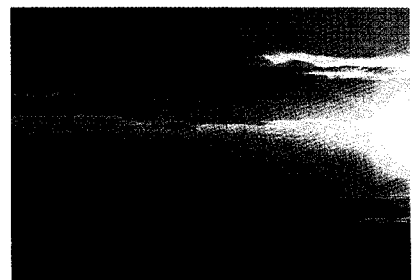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사진 제공, 김대현 blog.naver.com/andviva



김은주

수학과 국어를 좋아했던 유년시절, 사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중학교 때 발견한 듀안 마이클의 시퀀스 사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경일대학교에서 사진영상학을 전공했으며 '젊은사진가전', '아시아프', '아트대구', '한국광고사진대전'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한동안 사진관련 매거진에서 취재 및 사진기자로 근무했으며 2010년 <세 가지 거짓말_김은주 展, 자하미술관>을 시작으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인 작업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있다.